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명약, 이슬성신

인간의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새로 창조하는 분이 구세주요, 구세주가 이슬을 내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영(靈)이라고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은 피가 자꾸 썩어서 죽을 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희생적인 마음이고 또 영생을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100%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되는 거지 구세주를 100%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명약, 감로 이슬성신

구세주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재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세주가 온 것이지 구세주가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무리 봐도 구세주한테는 감로 이슬성신이 항상 내리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만드는 약이 이슬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목시록 2장 1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옷을 줄 터인데 그 흰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써어 있죠? 이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이슬성신입니다. 모세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슬만나를 내려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한 사실이 있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그림자로 보여 준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모세가 말하되 주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었

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중에서 멸망받으리라(행 3:22-23)." 그런 말씀이 써어 있죠? 감로 이슬성신 감추었던 만나를 내리는 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요, 말세를 이루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새로 창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으로 그대로 있다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야 구원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를 바로 알고 구세주를 100%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구세주를 100% 믿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어요? 안 만들어줘요.

이 구세주는 여러분들 보기에겐 어수룩하게 생겼을지 모르나 깡쟁이예요. 깡쟁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죠? 예누리가 없어요. 말하자면 100% 믿는 사람만 하나님으로 만들어줘요. 100%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만들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볼 때 마음에 의해서 피가 변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100% 는 썩지 않지만 3분지 1 정도는 피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의 100% 피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먹느냐 저렇게 먹느냐에 따라서 피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피가 이루어져야 구원이라고 옛날 전도관에서 영모님이 말씀을 했죠?

피가 이루어져야 되고, 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로 이



구세주 조희성님

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갖든지 저렇게 갖든지 자신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는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됩니다.

승리제단은 매일 예배보는 제단

그래서 제단에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만 빠져도 이루어지기가 힘든 건데 이를 빠지면 완전히 그 심령이 시커렇게 됩니다.

그 시커멓게 된 사람을 이루려면 차라리 새식구 100명 정도 정도하는 것이 나아요. 이미 나오다가 이를 빠져가지고 시커멓게 된 사람을 이루려면 100명을 정도를 해서 새식구를 구원하는 그러한 진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까 차라리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가끔 빠져야 돼요? 계속해서 나와야지요. 계속해서 나와도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제단은 매일 나오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하루라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비디오 예배를 봐도 분신으로 이슬성신이 내려

이 사람이 역곡제단에는 하루 걸러 단에 서죠? 하루 걸러 선다고 해서 이 사람 단에 안 서는 날은 이슬성신이 안 내리는 줄 알지만 이 사람 안 서는 날도 똑같이 이슬성신이 내립니다. 이 사람 단에 안 서는 날 사진 찍어

봐요. 이슬성신 내리나, 안내리냐? 의심쟁이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로 예배를 봐도 이슬성신이 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분신으로 역사한다는 걸 말했죠?

이 사람이 입에서 말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봐야 해요. 이 사람이 하루 건너서 예배를 보는 것은 지방제단에 가서 예배 봐 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 걸러서 예배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은 만날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끔 예배를 보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람이 지방제단에 서서 예배를 보면 이 사람의 분신이 전국제단, 전 세계 제단에 가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이 분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지방제단에 가서 예배 볼 때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도 지방제단에 다 따라와서 예배보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바쁘다고 안 가고 그러면 안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지방제단에 설 때에는 되도록이면 다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부산은 너무 머니까 안 와도 된다고 하는 것일 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방제단에 설 때에는 되도록이면 다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이예요.

여러분들, 후회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따라 다니세요. 부지런히 따라 다녀야 하나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바쁘다고 빠지고, 갔다 오기가 힘들다고 빠지고 그러면 천당 들어갈 때에 "당신 한 천 년만 쉬었다 와!" 그렇게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말세에 구세주로 나타난 자가 바로 완성자, 재창조주 하나님

이 사람더러 왜 완성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완전자가 돼서 그래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만 거지

말을 해도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생을 틀림없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지전능자예요.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 때에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될 수 없는 요소를 다 빼 버리고 하나님 될 수 있는 요소만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인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써어 있는데 그건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써 놓은 거예요. 사실은 바로 말세에 구세주로 나타난 자가 바로 완성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된 다음에 봐요? 진짜 그렇게 됐나 안 됐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자인 것을 알려 주러 (5대 공약)을 해

그러니까 구세주가 굉장한 분이예요. 보통 분이예요? 굉장한 분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없애버리고, 태풍도 못 불게 하고, 여름장마 비도 못 오게 하고, 전쟁도 못 일어나게 하고, 풍년들게 하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지전능자. 여러분들한테 전지전능자 구세주라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오대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진자가 돼 가지고 완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내 앞에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거든 두고 봐요.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후회 하지 말고 이 사람 말한 대로 좀 믿어 봐요! 아시겠죠?*

2003년 4월 25일 말씀 중에서



의인을 키워 내시는 영모님의 애뜻한 사정과 이긴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밤잠을 못 이루시고 피를 토하는, 죄의 담당으로 뼈와 가죽만 남아 피골이 상접한 영모님을 뵈고,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 곤고하고 불쌍하여 통곡을 하다

1979년 12월 하순경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온합창단의 연말정기 연주회가 있었다. 그때 영모님을 비롯하여 영모님 사모님과 많은 전도관 교인들이 참석하였었다. 이 사람과 해외주님도 함께 영모님께서 앉으신 좌석에서 옆으로 몇 좌석 건너서 앉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영모님의 옆모습을 봐오니 영모님의 모습이 몹시 늙어 보이고 초췌해 보이는 것이었다. 해외주님과 이 사람은 우리의 영적영마 되시는 영모님이 '이 못난 인생을 의인으로 키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밤잠을 못 이루시고 피를 토하고, 죄를 담당하셔서 뼈와 가죽만 남아 피골이 상접한 영모님을 뵈기가 몹시 죄송스러웠고,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 곤고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손수건이 흥건하게 젖도록 눈물을 펄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하나님의 기막힌 사정에 눈물이 자꾸 흘러 손수건을 짜서 눈물을 닦고 또 짜서 닦고 하다 보니, 두세 시간이나 되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울게 되었다.

문득 의자 밑바닥을 보니 눈물로 흥건해져 있었다. 영모님께서도 가끔씩 이쪽으로 눈길을 주시며 애써 눈물을 감추시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얼마 후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였다. 이덕빈 전도사를 만나 반갑게 악수를 했는데 순간 '나는 이긴자이고 너는 죄인이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쳐가는 것이었다. 해외주님께서는 밀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조사장 이 새끼! 자존심 교만 마귀에 걸려 떨어졌다."고 필필 휘시며 욕을 하시며 목을 가하시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은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을 놓고 울게 되니, 마치 초상집 같은 밀실이 돼버렸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해외주님은 망원동에 자택이 있어서 매일 밀실까지 출근을 하셨다. 하루는 항상 오시던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셔서 '왜 안 오시나? 언제쯤 오실까?'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해외주님은 다른 날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시면서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조사장 이 새끼, 이 개 같은 새끼!



합창 내내 하나님의 곤고한 사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기다리는 음란죄'에 걸려서 또 떨어졌다"고 하시며, 또 자유율법을 여겼다고 야단을 치시고는 목을 놓고 우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밀실 식구들이 해외이긴자를 따라 또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이다.

그때 이 사람도 두 다리를 땅바닥에다 뻗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면서 '또 하나님을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해외주님의 꾸지람과 쓴 매를 달게 다 맞았다. 그러면

서 마음속으로는 '이 개 같은 마귀새끼 더 때려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며 고소하게 여기고, 죄라면 이를 갈고 치를 떨며 다시는 '기다리는 음란죄'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굳은 결심을 하였다. 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뎅이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여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일 초 일 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밀실에서의 생활은 일 초도 딴 생각을 하려야 할 수 없고 고도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집착된 나날이었다. 하루는 산에 가서 아카시아 나무를 베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잠깐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논산 훈련소 교관으로 있었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잠깐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 논산 훈련소 교관으로 있었는데, 금마 재건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다. 그 당시 학생이었던 최군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쳐갔다. 그러

면서 지난날의 생각이 아스라이 스쳐가는 찰나였다. 해외주님께서 이것을 즉각 아시고 산이 찌렁찌렁 울릴 정도의 큰 소리로 "조사장!" 하며 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어이쿠 걸렸구나!" 해외 주님께서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걸렸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아찔했다.

나무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부두고 부리나케 해외주님께로 달려갔다. 해외주님께서 두 말도 않고 "조사장 이 새끼, 내가 그렇게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거늘 또 떨어졌다."고 필필 휘시며 그 유혹한 몸에서 나오는 무서운 힘과 큰 손으로 탁치는 대로 후려치시고 또 후려쳤다. 그런 상황에서 속으로 '이 개 같은 마귀새끼 너는 죽어 마땅해!' 하며 이 사람은 사정없이 때리는 매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한 마음으로 매를 맞았다.*